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

2018년 2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5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2. 5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, 중견기업혁신과
담당과장	이재근 과장(044-203-4360) 박 훈 과장(044-203-4370)	담 당 자	윤용석 사무관(044-203-4365) 홍기웅 사무관(044-203-4371)

'22년까지 중견기업 5,500개,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

- 1조 클럽 80개,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,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% -
- 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 세부 이행방안 발표 -

□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'22년까지 **월드챔프 1조클럽*** **80개가 육성**되고 **중견기업 수는 5,500개로 확대할 전망**이다.

* **월드챔프 1조 클럽** :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
(R&D 비중 3%↑ or 수출 비중 30%↑ or 매출액 성장률 15%↑)

○ 이를 위해, 정부는 '중소 → 중견'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**각종 규제·제도를 개선**하고, **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,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% 이상**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백운규)는 2.5일(월)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'네패스'를 방문하여 **"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"을 개최**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**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**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.

※ 네패스 :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(AI)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, '10~'17년 665명(협력사 포함)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
('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, '18년까지 29억원 지원)

○ 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, 아모텍, 신성이엔지, 더존비즈온,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·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코트라(KOTRA), 한국무역보험공사, 케이디비(KDB)산업은행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**'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(MOU)'** 체결식도 진행했다.

○ 백운규 장관은 “향후 우리나라가 **4차 산업혁명을 선도**하고, **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**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**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**.”라고 강조하고,

- “**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**하고 **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**하여 **글로벌 기업으로 도약**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.“라고 말했다.

< 「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」 개요 >

○ **일시 / 장소 :** ’18.2.5(월) 14:30~17:10 / 네패스(청주 오창산업단지)

○ **참석자** : **[산업부]**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
[유관기관]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KIAT, KOTRA, 한국무역보험공사, KDB산업은행
[업계] 일진글로벌, 아모텍, 신성이엔지, 더존비즈온, 마크로젠 등

○ **주요일정** : ①**중견기업 혁신성장 양해각서(MOU)***, ②**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 발표** 및 토론, ③네패스 반도체 패키징 생산공정 시찰

* 중견기업 유관기관(한국중견기업연합회.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.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.한국무역보험공사.산업은행)간 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MOU

□ 중견기업은 **‘양질의 일자리 창출’**과 **‘혁신성장’**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, 우리나라가 **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**하기 위한 핵심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.

○ 그러나,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, 일본,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**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**이 낮으며, **내수·소규모 중심, 대기업 의존적 성장**으로 해외시장 개척, 연구개발(R&D) 투자 등 **자체혁신 역량이 부족**하고 국제 **경쟁력이 미흡**한 상황이다.

□ 이에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 간 중소기업벤처부, 공정거래위원회, 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유관기관 및 학계, 업계 등 총 90여명으로 구성한

○ **「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」를 운영**해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.

○ 특별팀 **논의 결과**를 비롯해 수차례 **간담회, 현장방문, 관계부처 협의**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**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을 마련**했다.

□ 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 세부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.

F4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

○ **'22년까지 「수출 도약 중견기업」 500개社를 선정·육성***하고, 초기·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,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**맞춤형 프로그램****을 비롯해

* 수출메뉴판 활용 기업 당 연 1억 원 이내 지원, 정책금융 금리우대.수수료 면제 등

** (초기형) 수출 프로젝트 매니저(PM) 매칭 및 全단계 밀착 지원, (내수형) 주요국 대표 온라인몰 입점,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지원, (서비스형) 선도기업 선정 및 마케팅 지원 등

○ KDB산업은행(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.5조원)·한국무역보험공사(무역보험 19조 원 추가 지원) 등 **정책금융을 대폭 확대***하고, 자유무역협정(FTA) **활용을 적극 지원****해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* **(산은)**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('18~'22, 2.5조원), **(무보)** 무역보험('17년 46조원 → '22년 65조원)

** **(FTA)**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Korea) 사용편의성 강화,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

F5 기술혁신 역량 제고

○ **업종별 핵심 R&D***를 활용해 **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**하여 중견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, **「월드클래스300」 2단계 사업을 추진****하여 전기·자율차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 등 **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**

* R&D 예산('18년 4천억원) : 로봇 781, 자동차 772, 바이오 368, 전자 200 등

** 월드클래스300 : '18년 30개사 추가 선정, '19년 2단계 추진('22년까지 130개사 선정)

○ 아울러, **「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***」(Korea Tech-solution Platform)**을 구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,

- '22년까지 **지식재산권(IP)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**하고 **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****해 나갈 계획임

* '18.상반기 전문가 풀 조성, '18.하반기 온라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

**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강화,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

F6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

○ '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**대표 중견기업 50개社를 선정·육성***하고, **「MIP100」****(Middle-market Innovation Project)' **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&D**를 추진하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,

* 지역거점 중견기업 : 年 10개사 선정 및 공동 R&D, 수출·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
** MIP100 :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Bottom-up 방식의 후불형 R&D ('22년까지 100개사 지원)

○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·벤처기업과의 상생형 인수합병(M&A)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**'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' 조성***을 추진하고, **지역 채용로드쇼, 「일자리 드림(Dream) 페스티발」**** 등을 통해 **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** 및 **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**할 계획임

* 혁신성장 펀드 : '18년 '신사업 창출', '지역 중견기업 성장' 각 1호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 목표
** 지역별 채용로드쇼(年 5회 이상), AI 매칭시스템 기반 채용박람회(年 2회) 개최 등

F7 성장친화적 인프라 확충

○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해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**지원제도·법령 등을 개선***하여 '중소 → 중견 → 글로벌 기업'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고,

* <예시> (고용)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,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, (R&D)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

- '18년 시행되는 **9개 제도개선 과제***는 매출·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

* (고용) 내일채움공제(소득세 30% 감면), 경력단절여성(인건비 15% 세액공제), 고용증대세제(450만원 세액공제), (R&D) 신성장동력 R&D(최대 40% 세액공제) 등

○ 또한, 관계부처 합동 **중견기업 정책 위원회** 운영*, **유관기관** 및 **중앙-지방-기관간 협력 시스템** 구축**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·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,

- 한국중견기업연합회·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중심으로 **주요국 중견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*****해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임

* 중견기업 정책 심의.조정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.운영('18.下)
**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(중견련.KIAT 등)
*** <예시> 美 CEO-Connection, 中 Relay China, 日 교토상공회의소, 獨 가족경영재단

F8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

○ 중견-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(R&D),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, 중견기업의 **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** 참여 확대, 주요 **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·확산*** 등을 통해 **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**시켜 나갈 것임

* 전자.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차별화된 상생협력 추진 → 원사업자-1.2차-최하위 단계 뿐 아니라 未거래 중소기업까지 상생협력 확산

○ 아울러, **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,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**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*하고, 「하도급법」 등 **공정거래 제도개선** 및 **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**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

*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마련('18.1분기, 중견련), 사회적책임(CSR) 실천 우수기업 선정.홍보 및 포상('중견기업인의 날' 활용) 등

※ 별첨 : 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 세부 이행방안